

샘

샘물중고등학교 2016 여름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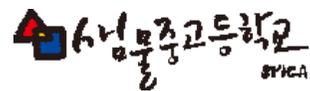


샘물이야기 샘 | 다섯 번째 이야기 vol.5

섬기는 예수 제자의 목적 있는 일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샘물이야기 '샘'을 통해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주목했으면 합니다.
다음세대 생명과 교회가 바로 이곳 샘물학교를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샘물이야기 샘
다섯 번째 이야기 vol.5



발행일 : 2016년 6월 30일
발행처: 지원본부 대외협력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56
문의 : 031.714.7091
이메일 : support@smca.or.kr
홈페이지 : www.smca.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ilovesmca

contents

- 01 학교장인사
- 04 샘물의 발자국
- 06 샘물, 길을 걷다
- 12 전략적계획 이야기
- 14 샘물의 미술교육
- 18 연구소 이야기
- 20 동아리 이야기
- 24 하꿈샘의 하루
- 27 세월호 기억예배
- 30 샘물가족축제
- 32 아버지 & 어머니세움
- 36 샘물 독서마라톤

학교장 인사

샘물인의 '아르키메데스의 점'



글 _ 샘물중고등학교장 이찬형

2016년 여름으로 가는 날, 이전에 샘물인들을 향해 써 놓고 활자화하지 않았던 글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박제되지 않고 아직도 싱싱하게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쓴 살 같이 물속을 유영합니다. 그 시간의 물에서 이 '글 물고기'를 꺼내 2016년의 샘물인의 물속으로 집어넣어 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았고, 그 앞에선 우리의 발걸음도 변하지 않았으므로.

오늘처럼 높고 푸른 하늘 아래서든, 비바람이 치는 태풍 속에서든, 샘물인을 지키는 것은 변하고 흔들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생애의 중심-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샘물인은 그 일상 속에서 예수를 배우고, 닮고, 자라며 여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탐스럽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사의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가 말했다.
"내게 고정된 점 하나를 다오. 지구를 움직이리라."

아르키메데스의 점. 고정된 점 하나. 변하지 않는 지점은 어디인가.
사람과 역사가 흘러간다. 장마와 가뭄이 뒤섞인다.
유사 진리의 홍수, 탁류는 생명의 목마름에 속수무책이다.
진리의 가뭄, 파종된 진리는 뿌리내릴 땅에서 학살당한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인생의 닳을 내려라.
예수그리스도. 인생의 닳의 이름. 온갖 폭풍을 버티게 한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다.
고정된 점 하나. 닳을 내린 인생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칠후 어둠에도 늘 거기 계신 하나님.
내 의식은 어둠의 세상 위로 별 같은 진리의 전등을 켜다.
현실은 늘 폭풍우 속에 시달리고,
때로 고요한 외로움이 칠후 어둠으로 넘쳐도
희망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빛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현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웃으며 고정된 점 하나를 찾아보라고 이죽거린다.
고정된 점 하나.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믿음의 지렛대를 내릴 때까지,
흔들리는 지구는 요동을 친다.
현실이 쓰나미로 영혼을 덮친다. 그러나 고정된 점 하나와 지렛대는 이미 거기에 있다.
믿음이 그 점 위에 서서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다. 지렛대를 잡는다.

오. 지구가 들렸다.

요동치던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지구가 '꿈틀'거린다.
거 봐라. 내가 뭐라던! 버티라고 했잖아.
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의 닳이다.
인생의 급류 앞에 있는 그대 샘물인. 점 하나를 찍어라.

예수 그리스도 -

아르키메데스도 몰랐던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그대 가슴 속에서 춤을 춘다.

샘물의 발자국

2016.04~06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봄을 지나 가지 끝에 맺을 열매를 위해 한 여름의 피약별을 견디는 여름학기가 진행 중입니다. 나홀로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세워져갑니다.

그림 _ 김진성 학생 (9학년 복음반)

4 April

학부모교육
교과설명회(중)
4월 5일



12학년
모의고사
4월 6일

학부모교육
교과설명회(고)
4월 7일



4월
연합예배
4월 14일



국토순례
경북 해파랑길
4월 18일~23일



샘지기 공동유세
토론회, 투표
4월 14일



세월호
기념예배
4월 28일



대청소
4월 29일



5 May

봄방학
5월 2일~6일

샘물기독교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설명회
5월 12일



샘물가족축제
5월 14일

6 June



6월
연합예배
6월 23일



Teacher's
Day
5월 18일



스승의 날
5월 15일



모의고사
6월 2,3일

샘물,수업을 열다
OPEN DAY
6월 9일



Teacher's
Day
6월 16일

학부모교육
6월 14일

샘물, 길을 걷다

"평화의 줄로 묶여진 우리"
(에베소서4:3)

경북 포항 호미곶과 영덕
4월 18일~23일

샘물에서는 봄학기를 마무리하며 일주일의 여정으로 길을 걷습니다. 샘물의 막내 예비중등(6학년)에서부터 11학년까지 중고 전체 학생과 교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한 부분을 걸으며, 일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로 함께 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특히 11학년 학생들은 조장과 부조장으로 후배들을 이끌며 섬김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어야 하는데 비가 온다면 어떨까? 거의 온종일을 빗속에서 걸어야 한다면, 거기에 더하여 만약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한다면? 아마도 매우 힘들고 걷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여럿이 하나 되어 같이 걸어간다면 걸어낼 수 있을까? 국토순례를 시작하며 내 안에 던졌던 질문이다.

B팀의 가장 힘든 코스가 예정된 셋째 날, 비가 내렸다.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강하고 세차게, 오랫동안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날은 춥고 안개는 자욱했다. 아침에 숙소에서 나올 때부터 우산을 써야 했고, 비에 젖은 채로 이동해야 했다.

국토순례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나는 환자 조에 배정되었다. 결국, 걷는 대신 숙소에서 다음날 세족식을 준비하였다. 세족식에서 사용될 롤링페이퍼에 아이들의 이름을 적는 미션이 주어졌다. 잘 모르는 후배의 이름도 써보고, 친한 친구 이름이 나타나면 친구의 특징을 살려서 꾸미기도 하면서 우리는 B팀 전체 학생들의 이름을 적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에는 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환자조 아이들도 순례길로 이동했다. 그런데 여전히 비는 세차게 내리고 안개는 자욱했다.



비록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몸도 좋아진 느낌이라 걸겠다고 말씀드리고 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바로 언덕길이 나타났다. 비가 내리는 언덕길이라 출발선부터 이미 발과 양말은 모두 흠뻑 젖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걷기가 괜찮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수술했던 부위와 다리가 아파졌다. 겉옷에 우의까지 걸쳐서인지 모자를 쓴 머리에서는 땀과 비가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렸다. 시작부터 젖었던 신발은 이미 너무 많이 젖어 걸을 때마다 축축함이 느껴지고, 오래 걸으니 발이 불어 오르는 느낌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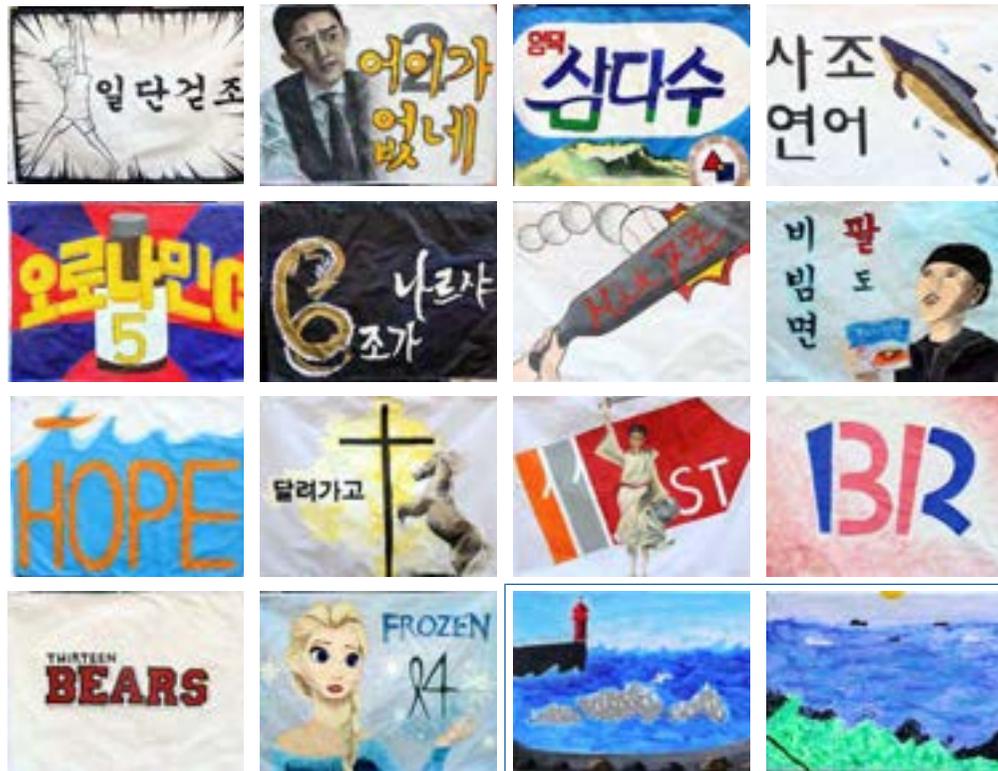
힘들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 약한 친구들이 걷기에 우리는 계속 걸었다.

걸으며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다른 조가 부르는 노래, B팀이 하나 되어 외치는 파이팅이 우리를 힘내서 걷게 했다. 안갯속에 보이는 풍경은 신비로웠다. 나는 때때로 우의 모자를 벗어 비를 맞기도 했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상쾌함에 너무나 행복했다. 출발할 때 받았던 간식을 꺼내 먹으면 배고픔 또한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조원들 모두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었지만, 웃으며 찍은 조별 사진은 멀쩡할 때 찍은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쉬는 지점에서는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녹이기도 했다. 휴식 이후에 우리 조가 선두에 서게 되었는데, 맨 앞에서 걷는 산의 내리막길은 탁 트여서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다른 날과 달리 걷기의 최종 목적지가 숙소였기 때문에, 안갯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숙소를 보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산길을 걸어 내려오다 보니, 저 멀리 숙소가 보였다. 맨 앞에서 걸던 우리 조는 환호하며 조금은 빠른 발걸음으로 숙소로 향했다. 그렇게 걸어서 도착한 숙소에서 우리는 초체해져 있었지만, 힘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쉴 수 있다는 것과 쉽지 않은 삼일차 순례길을 무사히 마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걸을 수 있었던 셋째 날이었다.

글 _ 박해진 학생(10학년 2반)

국토순례 조별 깃발 디자인



● 국토순례를 다녀와서 (9학년 미술시간, 복음반 김소정, 이정우)

그림 : 이은진 학생(7학년진리레반)

한 자욱이 두 자욱을 만날 때

글 _ 한승대 선생님(국어, 연구원)

걷는 일만큼 단순하고도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있을까? 나의 발자국은 어느 즈음인가 내가 이곳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취이다. 그 옆에 찍힌 너의 발자국은 함께 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추억이다. 시간을 더듬어 본다는 건 그 날의 내음을 떠올린다는 의미이다. 살포시 젖은 듯한 흙 내음에 어느덧 그 공간과 시간으로 끌려갈 때마다 되뇌어 본다. 너와 내가 그렇게 함께 있었노라고...

신임교사로서 샘물이란 이름이 이제야 우리라는 말로 입에 붙어갈 때쯤 국토 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브리핑이 열렸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들어간 계획인지 미처 알기도 전에 담당 학생들의 명단이 손에 쥐어졌고 귀에는 무전기의 이어폰이 꽂혔다. 낯선 이름, 낯선 얼굴, 그만큼이나 어색한 침묵. 11조와의 첫 만남이었다. 국토 순례가 당연한 듯 질문도 불평도 없었지만, 너무 조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학생들끼리의 말도 별로 없고 제일 활기찬 건 담당교사인 하늘샘과 나뿐이었다. 도보 연습 때도 줄 잘 맞추고 조용하게 집중하며 걷는 우리 조였다. 무전기와 사투를 벌이고 신호등에서 신호등까지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나로서는 그저 감사한 일이었다. 내년에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나? 총괄하고 계시는 라르샘이 위대해 보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도 태연히 인솔하고 계시는 남자 선생님들끼리의 단합이 대단해 보였다.

여러 좋은 의미의 조 이름들을 뒤로 하고 11조라서 11번가가 된 우리는 뜻밖에 깃발 디자인에서 한 마음이 됐다. 우리의 조장 차인이 해리포터가 되어 민중이 이끄는 자유의 여신 처럼 깃발에 등장하자 다들 감탄사를 연발했다. 조장이 가자면 어디든 따라갈 기세였다. 해파랑길은 걷기에 참 좋은 길이었다. 도착하자마자 70도(로 보이는) 경사길을 올라갔다는 작년의 지리산에 비하면 한결 낫다는 평들이었다. 힘들게 걷는 건 힘든 나름의 장점이 있었지만 다소 평이한 걷기도 나름의 장점들이 있었다. 잘 걷는 사람이나 잘 못 걷는 사람이나 더불어 가기에 좋았고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는 주제에 맞게 평안 가운데 걸었던 것 같다. 힘들게 걷고 보니 주제대로 걸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제를 신경 써가며 걷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고학년 남학생들이야 어떤 코스든 여유 있겠지만 말이다.

첫날이 걸을만했기 때문일까? 숙소에 와 보니 국토 순례를 어떻게 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한결 편해진 마음과 표정으로 여기저기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많았다. 선생님들도 걷기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복상을 어떻게 나누고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집중했다. 아픈 친구들도 스타렉스에 타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참여했고, 걷는 친구들도 스타렉스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걷기 자체에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너와 내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 지금 곁에 있는 이 공동체를 기억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엔가 여전히 있음에 감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샘물인들이 되기를 기도 해본다.

이번 순례 중에 가장 힘든 코스는 3일째 코스였다. A팀이 단단히 겁을 준 데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긴장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 걷는 내내 비가 온다는 건 달가운 일은 아니다. 학생들도 이것저것 불평할 일이 많았겠지만 다들 걸어가니 함께 걸을 수밖에... 그래서 혼자서는 못 가도 함께는 가나 보다. 캡틴샘이 챙겨다 주신 따뜻한 물 한잔에 다들 평소보다 더 감사하게 쉬는 시간을 가졌다. 차갑게 식은 밥이 부담스러웠지만, 평소에는 천덕꾸러기였던 국물에 의지해 다들 그릇을 비워냈다. 너도나도 젖은 발은 이제 문젯거리도 아니었다. 다만 교사가 들어야 하는 경광봉이 비에 젖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긴 했다. 하지만 시야가 좁아져 위험도 커지는 이런 날엔 손에 힘이 더 들어가기가 마련이다. 힘들었지만 형형색색의 우비 속에서 무지개 무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잠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거짓말처럼 날이 갠 마지막 날은 눈 부신 태양과 함께 시작되었다. 뜨거운 날씨에 나지막한 산속의 녹음이 고마웠다. 낮아도 산은 산이라 힘든 구간들이 있었고, 앞 조에서는 연신 군가를 불러가며 힘을 내고 있었다. 11조도 뭔가 하면 좋겠는데 군가가 너무 세다. 뭘 해도 문힐 분위기다. 조장 차인은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 중이다. 11조도 뭔가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다. 뜻밖에 힘도 나고 아이들도 좋아한다. 발에 잔뜩 잡힌 물집 때문에 고생 중이었는데 신이 나니 아픈 것도 잠시 잊게 된다.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이라 힘이 들어도 힘을 낼 수 있다. 하꿈샘도 아이들을 북돋워 주시느라 계속 구호를 외치신다. 마지막 지점이 다가올수록 너도나도 파이팅을 외치고, 아픈 친구들도 마지막 힘을 낸다. 스타렉스에 탔던 친구들도 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내디딘다. 그렇게 우리의 발자국 옆에는 너의 발자국이 남겨졌고, 두 자국이 만나 샘물의 푸르른 시절을 가슴에 남겼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원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분은 우리를 이미 샘물 배움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 더불어 걸었던 시간이 그리워질 무렵이면 흠 내음이 우리를 다시금 불러줬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함께 걸었던 그 시간으로...



걸음의 조각들 (7학년 미술수업, 지도 : 이금주 선생님)



7 복음의 국토순례

끝없는 오르막길과 바닷길이 우리를 기다린다.
 계속 맡게 되는 바다의 짠 내와 해안가에서 마르고 있는 생선 냄새
 이 모퉁이를 돌면 버스가 있기를. 하지만 푸른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다.
 계속 길을 걷는다. 언제까지 걸을까? 다 걷고 버스를 타면 마음이 놓인다.

비 내리는 산을 타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10분의 휴식시간에 마시는 물은 미지근해도 꿀맛이다.
 힘든 길을 걷다가 점심시간이 오면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다.
 힘든 길을 걷고는 꿀잠을 잔다.

내가 더 감사한데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름답다.
 국토순례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화합하며 걷는 길.
 하나님의 길을 연습하는 순례의 길이다.
 이 긴 길 언제 다 건너냐고 시작한 우리들 어느덧 완주를 한다.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우리들
 국토순례는 정말 좋다.

글 _ 7학년 복음반



01. 김진영 학생(9학년 진리반) 02. 손가영 학생(9학년 복음반) 03. 이예담 학생(9학년 진리반) 04.우수아 학생(9학년 복음반) | 지도 : 유승민 선생님

전략적 계획, 그 두 번째 이야기

글 - 권민영(샘물배움공동체 이사)

2013년 4월 5일, 상하동 캠퍼스를 만들어 가는데 학부모님들과 함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 캠퍼스뿐만 아니라 학교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략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매학교인 WCA의 총괄교장을 28년 역임한 짐마쉬는 전략적 계획을 통하여 신앙과 학문적 탁월성이 균형을 이룬 성공적인 기독교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략적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샘물학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를 세우고자 전략적 계획을 모두가 함께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2014년 1월 교장선생님과 함께 미국의 WCA를 3주간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2월 교직원연수의 SWOT 분석을 시작으로, 8개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22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전략적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전략적 계획의 우선순위와 2016학년도 학년별, 학과별 목표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1기, 2기 졸업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배출한 이 시점에 왜 전략적 계획을 추진하나?', 'WCA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가?' 계속 반문해 보았습니다. 샘물학교가 학부모님들의 기도, 교직원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하나하나 잘 세워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열악한 환경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 두렵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전략적 계획을 통해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실히 나아 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섬기는 예수제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를 안식하며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꾸 반문하며 궁리하며 기도할수록, 샘물배움공동체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우선순위 2 "주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샘물배움공동체를 형성한다."를 이루어갈 때, 우선순위 1의 "섬기는 예수제자"와 우선순위 3의 "기독교학교운동의 확산"을 이루어 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샘물배움공동체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자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샘물중고등학교 전략적 계획

우선순위 #1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성, 인성과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섬기는 예수제자'를 양성한다.

전략 #1-1
샘물중고등학교의 교육 및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한다.

전략 #1-2
영성 및 성경적세계관 교육의 심화; 영성 및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심화하여,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고, 말씀에 복종하여 책임 있는 예수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한다.

전략 #1-3
인성함양 및 진로/은사개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인성교육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적용하며,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한다.

전략 #1-4
실력버리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실력을 버리고, '섬기는 예수제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한다.

전략 #1-5
수업개선과 교직원 성장 및 자기개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며, 교직원들이 '섬기는 예수제자'의 모델로 자리 잡도록 성장 및 자기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한다.

우선순위 #2
주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샘물배움공동체를 형성한다.

전략 #2-1
비전과 핵심가치의 고도화 및 평가; 비전과 핵심가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성원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평가하여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한다.

전략 #2-2
샘물배움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 학교의 설립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원과 소통하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있는 샘물배움공동체를 세워간다.

우선순위 #3
성도의 모든 자녀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기독교학교운동의 깊이와 넓이를 확산한다.

전략 #3-1
기독교학교운동 확산과 홍보; 샘물중고등학교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세워 가는 기독교학교의 롤모델이 되도록 세워가며, 다른 학교 및 다른 교회와의 협력과 분립개척학교 등을 통해 기독교학교 운동을 확산한다.

전략 #3-2
샘물중고등학교가 흔들림 없이 기독교학교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무적 안정성을 확충한다.

※ 지면 관계로 우선순위와 전략이지만 기술하며 목표와 실행 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샘물의 미술교육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샘물의 미술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감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세상의 타락을 바로 보고 진리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고, 회복의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 생각을 함양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미술 교과는 다양한 미적 경험이 일어나고 새로운 재료와 표현을 시도하면서 학생마다 고유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보지 않고 만져보면서 촉각만으로 상상하고, 맛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 봅니다. 학교 캠퍼스를 다니며 일상을 관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관찰합니다. 재료를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사용해 보기도 하고 꼼꼼하게 끝까지 작업하여 작품의 완성을 맞춥니다. 또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고 새롭게 그려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업 안에서 우리 삶을 둘러싼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주제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웁니다. 결국, 학과의 목표는 우리 가까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방법으로 심미안과 표현방법을 배우는데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수업과 학년을 벗어나 학교의 교육 활동과 학년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가 일어납니다. 국토순례에서 다양한 주제로 그린 깃발을 휘날리며 담대히 길을 걷습니다. 국토순례의 공동체 기억은 미술작품으로 남깁니다. 샘물의 학생들은 환경미화, 학급활동에서 여러 학과과제 그리고 축제의 메뉴판까지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으로 미술과 함께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도구로 언제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미술입니다. 표현 도구로 샘물의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정을 함께하는 삶에서 자유롭게 '그리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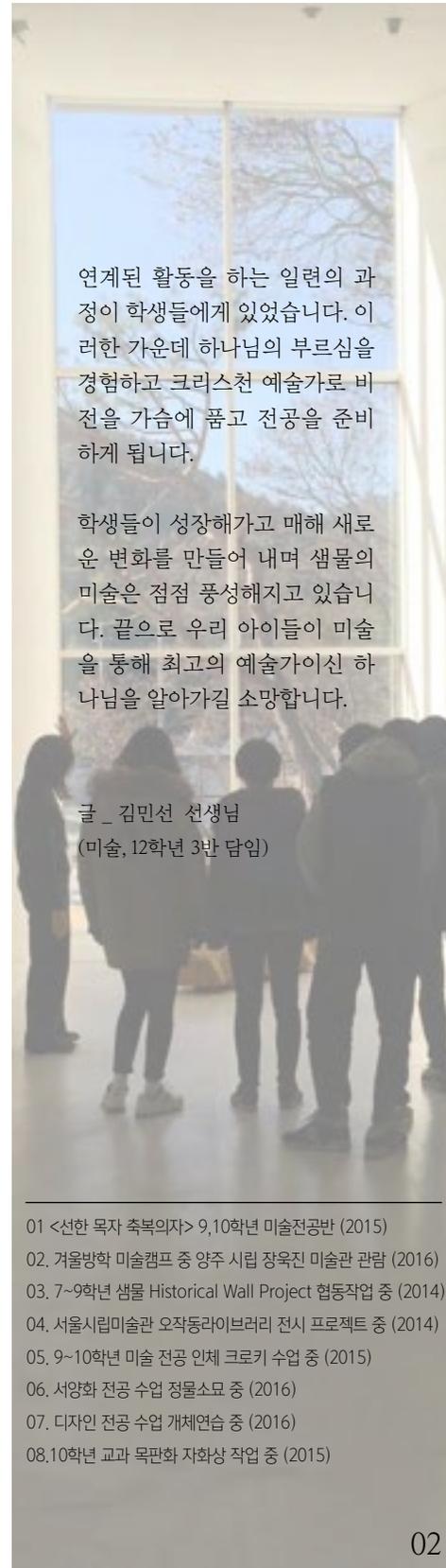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전 3:22)"

방과 후 미술실은 그림을 특별히 더 좋아하고 미술 전공을 꿈꾸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미술전공 학생들은 교과 내 전공 수업을 통해 미적 소양을 쌓으며 성경적 가치와 예수제자의 삶을 위한 전공 지식과 통찰을 배워갑니다. 또한, 전공 실기 연습을 하며 실력을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미술전공반 안을 자세히 보면形形色색의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 색채감각이 좋은 친구, 아주 세밀한 관찰력과 표현을 가진 친구, 한국화에 매력에 빠져 전공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친구, 센스와 유머가 있는 일러스트와 만화를 잘 그리는 친구, 현상과 개념에 대한 표현을 생각하는 순수미술 관심자, 영화와 공상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고 음악, 연극, 체육, 무용 등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어떤 예술인이 될지 고민하는 학생들까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게 지으신(시: 139:14)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뵙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인한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고후4:4)임을 고백합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확인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과 주신 은사에 대한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가을 컨퍼런스, 그리고 진로적성검사 상담을 통해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러 외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달란트를 사용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병원 호스피스병동 벽에 그림으로 따뜻함을 더하는 벽화 프로젝트를 하였고 학교에 기억을 기록하는 기억의 벽을 만들어 설치하고 미술관에서 작가와 함께 전시의 주체로 참여하며 외부에 미술관과

01



연계된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크리스천 예술가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공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성장해가고 매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며 샘플의 미술은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글 _ 김민선 선생님
(미술, 12학년 3반 담임)

02

- 01 <선한 목자 축복의자> 9,10학년 미술전공반 (2015)
- 02 겨울방학 미술캠프 중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 관람 (2016)
- 03 7~9학년 샘플 Historical Wall Project 협동작업 중 (2014)
- 04 서울시립미술관 오작동라이브러리 전시 프로젝트 중 (2014)
- 05 9~10학년 미술 전공 인체 크로키 수업 중 (2015)
- 06 서양화 전공 수업 정물소묘 중 (2016)
- 07 디자인 전공 수업 개체연습 중 (2016)
- 08 10학년 교과 목판화 자화상 작업 중 (201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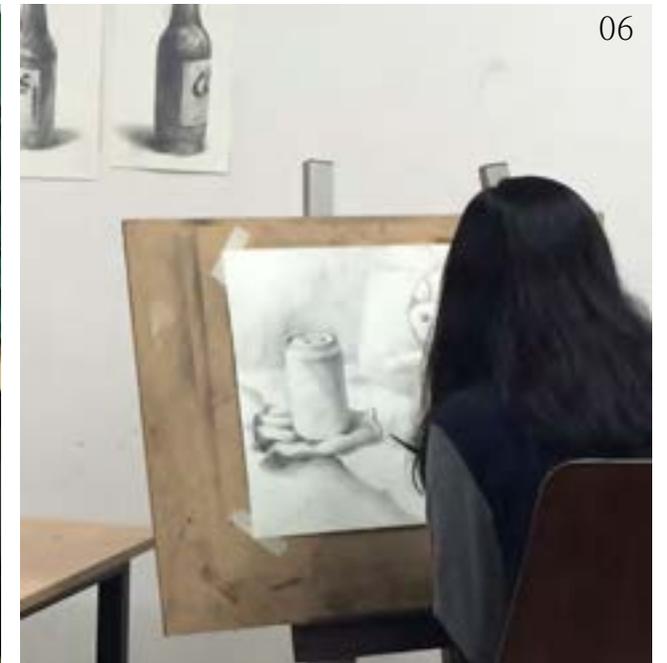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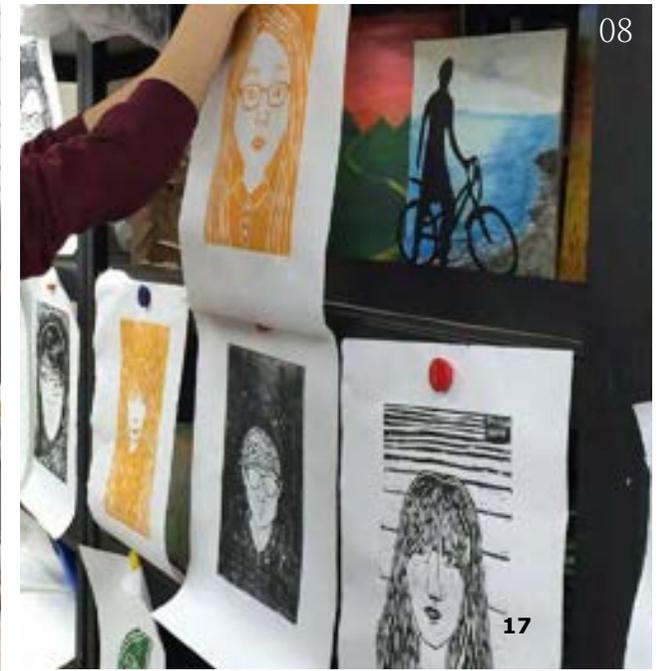
06



07



08



17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우리의 손바닥에 무한이 있고
한 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

‘샘물배움공동체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공동체’를 향한 섬김

샘물 기독교교육의 정점은 교사와 제자가 만나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현장입니다. 그 곳에서 샘물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샘물의 교육목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샘물기독교교육연구소는 샘물배움공동체가 교육 목표(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성도의 자녀들을 ‘섬기는 예수제자’로 양육)를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진리공동체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섬기는 곳입니다.

교육과정 연구

성경적 교육과정의 연구·실행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근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대명제 하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과목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바라보고 재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배움의 주체인 샘물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한 명 한 명이 독특(unique)하고 특별(special)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자를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 자체에 대한 공부, 성경적 세계관으로 단원을 재구성하고 계획하는 연구, 주제 중심의 과목 통합 등이 샘물의 교육과정으로 체계화되도록 섬기고 있고, 후자를 위해서는 각 학년의 독특한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그 독특함을 성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학년별 교육과정의 연구와 실행입니다. 현재 예비중등과 7학년의 연구과 텃밭가꾸기, 8학년의 샘물수업, 9학년의 진로교육, 10학년의 비전트립 등이 샘물의 교육에 있습니다.

교사 교육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은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

다. 기독교교육에서도 동일하게 ‘기독교사’는 정말 중요한 교육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샘물의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으로 샘물에 오셨기에, 직업이 아닌 직분으로 귀한 현장에 있다는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삶과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예수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방향성 없는 흩어짐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과 견고한 동역자됨을 이루기 위해 교사교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가정과 함께 하는 샘물의 교육 철학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학부모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은 샘물의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동역자로서 샘물의 교육에 함께 하게 됩니다. 샘물의 모든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샘물의 교육을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동역자로 만남에 감사와 즐거움

샘물기독교교육연구소에는 위드샘(이정미), 유샘(장유정), 연준샘(한승대) 세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세 선생님의 재능과 은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연구소의 업무들을 감당해나가는 동역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땅끝사랑샘(상임이사님)이 연구소장 대행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교목실 목사님께서 성경적 세계관 연구에 협업을 해주고 계셔서 연구소의 동역은 더욱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샘물배움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알아갈 수록 삶을 사랑으로 풍성히 엮어나가는데, 샘물기독교교육연구소가 부족하지만 작은 섬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읊었던 시처럼 아주 작은 하나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배움의 즐거움이 샘물에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25

스물 다섯가지 샘물 동아리 이야기

샘물에서는 취미활동을 넘어 폭넓은 경험의 습득과 배움의 활용을 위해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동아리는 학생이 자체적으로 개설한 동아리(8개)와 학교에서 개설한 동아리, 은사개발프로그램(17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사개발은 교사와 학부모가 멘토가 되어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 음악, 신체운동, 언어, 논리수학, 친화(관계) 등의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활동입니다.

동아리 지원
김선아 선생님(영어) & 최수미 학부모님(9학년 유예준)

Photo by
사진동아리 학생(지도 : 김장희 학부모님) 및
각 동아리 담당 선생님



01 —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8,9학년 | 조수진 선생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나 방송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여러 사람이 알고 기억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립니다.

02 — 퍼포먼스팀 광명체

7,8학년 | 안정원 학부모님

하나님은 사람이 음악과 춤 등 예술을 통해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음악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가요와 찬양을 재해석하여 음악과 춤으로 퍼포먼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03 — 남자농구 | 11학년 | 한명훈 선생님

친목과 배려심을 배우는 농구 동아리.
구기 종목인 농구를 하며 아이들의 협동심을 키우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배우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04 — 탁구왕 탁구부 | 11학년 | 김영희 학부모님

탁구왕이 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탁구 플레이를 하면서 실력을 기르고 시합도 하며 경험을 쌓아갑니다.

학생 개설 동아리

05 — 우리 샘물 예체능 | 7,8학년 | 이태준 선생님

7,8학년이 모여서 함께 친화력을 다지고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동아리. 농구와 족구를 할 것이고 비가 올 때에는 관련 영화 시청이나 스포츠 관람 경기 하이라이트를 시청합니다

06 — 쓰레기 동아리 | 8,9학년 | 박미량 학부모님

학교의 교실이 아닌 건물 밖의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봉지와 집계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주워서 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미화 활동을 합니다.

07 — 꽃미모 | 10학년 | 구현희, 공미영 학부모님

꽃보다 미식가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감과 인간이 만들어낸 음식을 조화롭게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동아리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10학년 친구들에게 활력소입니다. 포트폴리오 작성 후 축제에 내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08 — 무비무비 | 10학년 | 김현희 학부모님

영화를 보고 느낀 점과 배울 점 등 감상문을 작성하고 서로 나누면서 이해하고 친목을 다지며 서로 배워갑니다.

학교 개설 동아리

09 — T.G.A.L.

예비중등-11학년 | 안은경, 홍주연 선생님

Think Globally Act Locally의 약자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가까운 이웃을 섬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품는 봉사동아리로 양육공동체인 '생명을 주는 나무'에 매주 방문하여 청소, 빨래, 아이 돌보기 활동을 합니다.

10 — 체육은사(축구)

7-10학년 | 김정화 선생님

건강하고 바른 신체활동은 바른 생각 바른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축구 위주의 체육 활동을 하며 은사를 개발합니다.

11 — 미술은사 | 7-11학년 | 이금주 선생님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여 잠재된 시각 예술의 다양한 달란트를 발견, 개발하고 은사의 소명의식을 세우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예술 소양을 쌓아갑니다.

12 — 찬양팀

8-11학년 | 주세진, 조대섭 선생님

샘물의 공동체예배, 연합예배, 컨퍼런스 등의 예배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며, 찬양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배웁니다.

13 — 하늘별 | 7-11학년 | 박고운 선생님

함께 문학을 읽고 나누고 즐기며 더 깊은 문학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문예 창작활동을 하고 나누고 다듬는 활동을 합니다.

14 — 바비걸즈 BAsketBall Girls

8-11학년 여학생 | 정윤경 선생님

여학생들이 외부에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연습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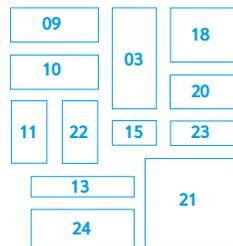
10



11



22



13



24



03



15



18



20



23

15 — 샘플 플레이어 (미디어 동아리)

9-11학년 | 박미현 선생님

기존에 운영되었던 라디오 팀을 이어받아 점심 방송을 진행하고 교내 행사들의 홍보, 후기 영상들을 만드는 영상팀입니다.

16 — 과학 기술 프로젝트 동아리

8-10학년 | 임성도 선생님

자전거 발전기 만들기, 적정기술 제품 만들기 등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합니다

17 — 사물놀이 | 예비중등-11학년 | 김태영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사물놀이를 배우고 익혀서 전통리듬으로 찬양하고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

18 — 생활원예(꽃꽂이, 데코)

전학년 | 신윤지, 임미자 학부모님

다양한 꽃과 식물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배웁니다.

19 — 생활소품 DIY | 예비중등-9학년

박오순, 정경아 학부모님

바느질, 펠트, DIY를 통해 생활소품을 만들어보고 손재주를 익힙니다.

20 — 사진반

예비중등-11학년 | 김장희 학부모님

사진 촬영 후 모여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촬영한 사진을 이용한 포토샵 처리 방법을 배웁니다.

21 — 중창단

예비중등-11학년 | 김영일, 이은실 학부모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하라(시 150) 작은 노래가 모여 큰 하모니를 이루며 즐겁게 음악을 즐기는 활동을 합니다.

22 — 통기타 | 8,9학년

오진숙, 강현정 학부모님, 한승대 선생님

기타연주의 기본기를 배워 연주하고 찬양 반주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3 — 요리반 | 8,9학년 | 김희영, 이문자 학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과 음식을 다 만든 후의 성취감을 통해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요리 수업입니다.

24 — 목공반 | 8,9학년 | 이상춘, 김성진 학부모님

끌, 톱, 망치 등의 수 공구를 사용하여 원목으로 짜맞춤가구를 만드는 목공 수업입니다.

25 — 산행과 산책

예비중등-11학년 | 송은주, 이건호 학부모님

석성산과 법화산 등을 산행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Interview

하꿈샘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하꿈샘
(김지훈, 7학년 사랑반 담임)을
만나보았습니다.

별칭 ‘하꿈’ 샘의 의미는 —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꿈꾸고 계십니다. 그 꿈은 한 찬양에서도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기까지 하시면서 품으신 꿈입니다. 제가 앞으로 만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꿈꾸라고 하는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놀라운 그 꿈을 학생들이 발견하고 꿈꿀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꿈입니다.

샘물중고등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

대학원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대학 선배인 시온 샘을 만났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샘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립학교만을 생각했었는데 기독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가 있다는 사

실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샘물에 오게 되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의 특징은 —

샘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샘물에 와서 가장 놀랍고도 좋았던 것이 교사와 학생이 맺고 있는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닌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곳에서 배웁니다.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교사들을 보며, 선생님들의 사랑에 꾸밈없이 반응하는 학생들을 보며 샘물은 아름다운 사제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7:50 교사복상 / 8:20 교실복상 / 9~3시 수업 / 3시 10분 학급상담 / 4시 교과연구 및 수업준비



07:5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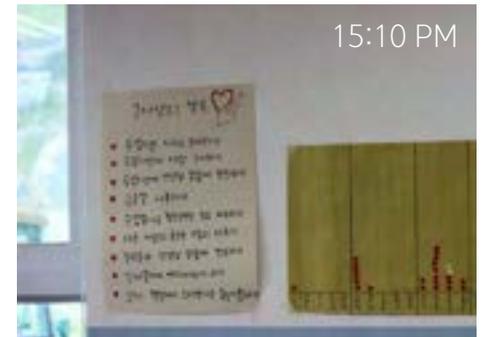
08:20 PM

수업을 준비하며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

국어는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문학과 문법을 다루기에 학생들은 국어를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국어를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국어라는 교과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 아이들의 말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꿈이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하고,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수업.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국어가 정말 즐겁다고, 꿈꾸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09:00 PM



15:10 PM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샘물의 교사란 —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배자. 샘물의 교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사람. 고갈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



16:00 PM



입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동료 교사와 소통하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소통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 샘물의 교사.

선생님의 꿈과 기도제목이 있다면 —

계속해서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교사,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사, 소통하는 교사. 이루고 싶은 교사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수 없을지라도 이런 교사의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의 꿈, 그리고 책임 있는 삶

두 번째 세월호 기억예배

세월호 기억예배는, 세월호 사건이 외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친구 혹은 선배, 형제, 자매가 희생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의 키워드가 '공감'에 초점이 있었다면, 올해는 여기에 더하여 '기억'과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 재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원인조차 규명도 되어 있지 않고,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예배는 '사건을 기억'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의'를 갈망하고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과 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꿈'은 무엇이였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꿈꾸었던 삶을 함께 기대하고 꿈꾸며 자신의 꿈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글 _ 샘물중고등학교 교목실

세월호 그 후 2년(선생님의 고백)

국토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게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는 학교에서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기다리는 여러분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개교 때부터 진행된 순례길이라 특별할 것도, 새롭지도 않은 장면 중 하나인데도 이 모습이 제겐 애뜻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 그리고 안심하는 여러분의 모습. 동료 선생님은 첫 국토순례부터 이 장면이 그렇게 애뜻할 수 없다 했는데 늦된 저는 지금에서야, 아니 2년 전부터야 이 장면에서 가슴이 벅차웁니다. 아릿함도 있고요.

우리는 늘 4월에 국토 순례를 떠납니다. 2014년 이후 제게 국토순례는 샘물만 걷는 길이 아니라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한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단원고 학생들과 떠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2014년 국토순례를 앞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보 연습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2015년 1년을 기다려야 했던 지리산에서 그들을 품고 걸었기 때문이었을까요. 2016년 평화길도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2017년도 그들과 함께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참사가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전쟁도 겪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 일이 왜 더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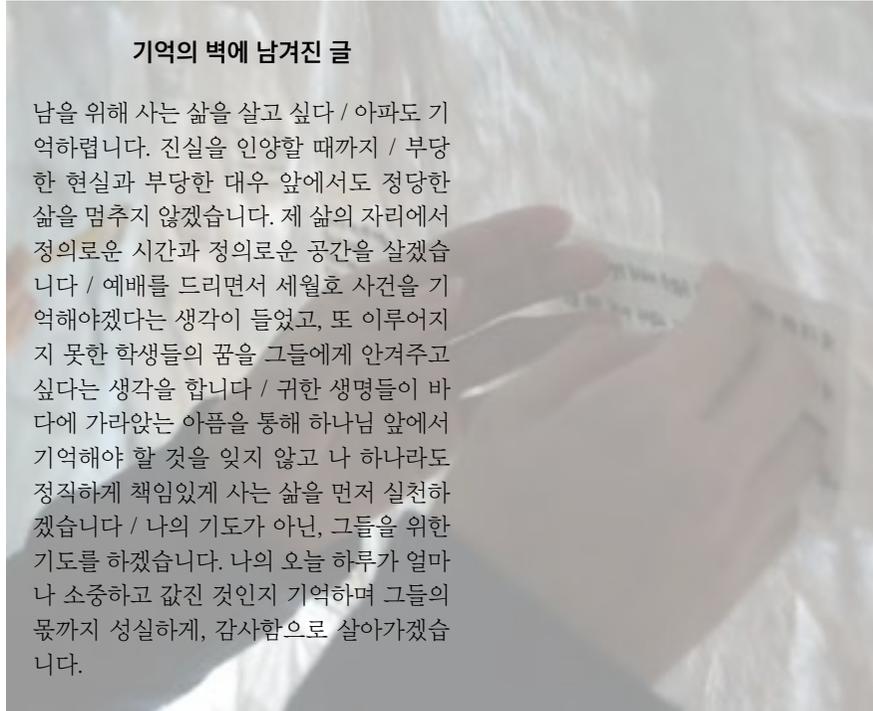
우리가 이 사건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원구조 소식부터 구조실패까지 그 모든 과정을 TV로 인터넷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 우리는 학교에 몸을 담은 자들이었습니다. 학생 아니면 교사

01



기억의 벽에 남겨진 글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싶다 / 아파도 기억하렵니다. 진실을 인양할 때까지 / 부당한 현실과 부당한 대우 앞에서 정당한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정의로운 시간과 정의로운 공간을 살겠습니다 / 예배를 드리면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루어지지 못한 학생들의 꿈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귀한 생명들이 바다에 가라앉은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나 하나라도 정직하게 책임있게 사는 삶을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 나의 기도가 아닌,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기억하며 그들의 몫까지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긴 열음장 같은 4월의 바닷물이 내 피부로, 온몸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아직도요.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안전불감, 자본주의의 실패, 리더의 역할 등. 제가 여러분과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476명은 탑승객 수입니다. 295명은 구조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중 246명은 단원고인 것이고, 9명은 실종자의 수입니다. 물론 이 중 단원고인이 6명이고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희생되었을까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이 차오르는 선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니다. 사실 그때 즈음 제 몸 상태는 걷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다친 무릎이 2주째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아, 쉬는 수박에 도리가 없어 국토순례 도보 연습도 걷질 않고 있었습니다. 다다음날 무리가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아주 조금 들었지만 걸었습니다. 너무도 걷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2016년 국토순례 평화길은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의 길을 함께 걸었던 샘물. 우리도 함께 계속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본 일을 마음에 담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시민의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_ 안은경 선생님(영어, 8학년 사랑반 담임)

‘꿈’, ‘정의’, ‘책임’을 적용하기(반별모임)

아이들의 이름이 나왔던 동영상을 생각하며 그들이 꾸었던 ‘꿈’을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나의 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만약 구체적인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해봅니다. 나 또는 함께 이뤄야 할 ‘꿈’을 통해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 다짐해봅니다. 꿈과 다짐의 내용을 주어진 용지에 작성합니다. 반 안에서 함께 각자의 꿈과 다짐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의 벽

다짐을 게시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작성한 용지를 가지고 반별 순서에 따라 교무실 앞에 설치된 조형물에 붙입니다. 조형물은 ‘기억의 벽’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몫까지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조형물에 자신의 꿈과 책임에 대한 다짐을 붙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침묵 가운데 하고 반으로 돌아왔습니다.

02



03

01. 기억예배 02. 적용하는 반별모임 03. 기억의 벽



photo by 김장희(7학년 진리반 김중우 아버지)

샘물배움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샘물가족축제 포토 스케치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샘물가족축제가 열렸습니다.



03



04



05



06



07



08



09



01



02



10



01_ 아버지계주 02_ 어머니 영어성경암송 03_ 줄다리기 04_ 샘물사진관 05_ 피구 06_ 팔씨름
 07_ 감사행사 08_ 반별 기념사진 09_ 신나게 뛰어노는 동생들 10_ 졸업한 선배들의 방문

아버지 & 어머니 세움

샘물중고등학교는 자녀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함께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자라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어머니, 아버지께서 배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아이가 2~3살 무렵 보관해 두었던 돌 반지를 팔아 신기한 한글**를 시작했고 곧잘 따라 했던 아이를 보고는 우리 애가 천재인가보다 하며 신기한 영어**까지 몇 박스를 사 들고 부모가 아닌 학부모 될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임신의 어려움에 은근 하나만 키우는 일종의 편안함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아이 하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우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공부에 목숨 거는 학부모는 되지 말자! 신앙은 기본인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회성 좋고 예의 바른, 외동딸인 것 같지 않은 외동 키우기'였습니다. 그렇게 키우기 위해 선택한 저의 방법은 늘 혼자 재우기,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사회성 키우기, 가족여행은 못 가더라도 선교사님들의 삶, 빈곤한 아이들의 생활을 봐야 한다는 허울 좋고 조금은 의도된 목표로 한겨울엔 중국에 전기도 화장실도 없는 3,000m 고산지대 소수민족 삶을, 한여름엔 45~50도 살인적인 더위의 인도 빈민촌을 함께 데리고 가 경험시켰습니다. 캠프란 캠프는 찾아서 모두 보냈습니다. 캠프 중 집에 오고 싶다고 울며 전화가 와도 "엄마는 절대 너를 데리러 가지 않을 거야! 그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살래!! 기도하면서 이겨내~" 참 믿음 좋고 쿨한 엄마였고 늘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잣대를 아이에게 적용했습니다. 따돌리는 일은 없어야 했고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건 당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떠들고 장난치면 안 되었고 모든 예배와 캠프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나의 그런 노력에 당연한 결과인 듯 많은 사람은 아이가 외동인 줄 몰랐으며 잘 키웠다고 칭찬을 했고 교회에선 성실히 봉사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해줄 줄 아는 꽤 괜찮은 아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샘물에서 중학교 3년을 잘 보낸 듯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희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를 바랐던 나의 바람 대신 아이는 이 그룹에도 저 그룹에도 끼지 못하며 모두 챙겨주지 못하고 친구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이 밉다며 착한 아이 증후군을 보이기 시작했고 의무감과 억지로 갔던 모든 캠프와 학교활동은 자기 방에서는 혼자서 잠을 못 자고 밖에 나가면 잠드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순례를

앞두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아이와 그래도 보내야 하는 저와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고 저녁마다 타이르기 와 혼내기를 반복하며 12, 1시가 넘어야 포기하듯 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늘 옳은 말과 행동을 요구하며 독립적으로 양육한 부모에게 느낀 두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상담을 요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꽤 아이를 잘 양육했다고 교만을 떨던 저의 민낯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 양육방법이 실패한 듯 스스로 자책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엄마 실수 따위로 아이를 그렇게 두시지는 않는다며, 아이 존재로 기뻐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며 분명히 잘 이겨낼 거라고 아이가 그렇게 나약한 아이가 아니라며 샘물의 선생님과 붙여주신 여러 동역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텝으로 섬기며 어머니 세움을 다시 듣고, 임계 되었습니다. 어머니 세움은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아내로 사는 삶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스텝으로 섬기면서 여러 번 어머니 세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의 상황에 맞게 세밀하고 자세히,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이와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성장에 맞게 보살피지 못했던 엄마의 실수를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이의 현재의 모습과 속도에 집중하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은 형식적이고도 의도된 고생스러운 선교지 방문이 아닌 주님 주신 자연 속에서 견고 자고 먹고 즐기고 쉬는, 둘만의 여행으로 아이의 뿌리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올 방학에는 두 번째 모녀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의 시간을 보내며 친구 관계나 삶에 관한 질문, 진로와 신앙적인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아이와는 더 친밀한 모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회성 좋고 예의 바른, 외동인 것 같지 않은 외동 키우기'라는 저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예수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빛나고 화려한 그릇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시도록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늘 하나님 나라가 아이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마음 다해 사랑해주는 선생님들과 어머니 중보기도회를 통해 만난 동역자들 그리고 매년 진행된 어머니 세움, 이 모든 것을 예비해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헤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샘물에서 남은 시간이 무척 바쁘고 아쉽습니다.

우선은 저의 무지로 생긴 상처 난 딸아이의 뿌리를 정성으로 치료하고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곧 여름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샘물학교와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섬겨야 합니다. 샘사랑 임원으로 섬기게 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일정보기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만을 위한 기도가 샘물의 모든 아이를 위한 기도가 되었고 다음세대로 확장되었으며 저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더 많이 성장하는 샘물에서의 시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_ 샘물의 ***의 어머니 (7기 어머니세움 수료)

처음 아버지세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아내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는 '또 올 것이 왔구나. 한 달 동안 피곤하겠구나. 진급을 안 시켜준다니 어쩔 수 없이 들어야겠구나. 학부모교육처럼 가서 가만히 앉아서 듣다 오면 되겠지? 귀찮지만 들어야겠네!'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육을 맞이했습니다.

첫 시간, 조 이름 정하기와 중간중간 조원끼리 나눔의 시간이 군중 속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는 저로서는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셋째 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서로 나눔 속에 나와 같은 처지와 생각,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아이들과 가정 속에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들에 도전도 받고 용기도 얻는 체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을 교육을 통해 받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 서랍, 추억의 보관함 속에 부모와 함께 한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주어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경험에서 실천에서 우러나오시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저만치 멀어지고 있구나. 끈을 놓지 않아야겠구나 하며 다짐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둘째 아이와의 관계 형성 및 경험을 들려주실 때 망치로 머리를 댕~ 하고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큰 애보다는 초2 여자아이인 둘째로 인해 앞으로의 교육이나 관계 형성에 갈 길을 모르던 참에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시며 결국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음속에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구나! 내가 우리 **의 아버지구나. **의 모든 표현함과 언행이 나에게서 왔겠구나! 를 생각하니 아이에 대한 이해심이 저절로 생기는 경험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작게나마 제가 아이에 대해 힘든 상황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OO'을 하여도 그 또한 제 아이이기 때문이고 제 기질을 하나라도 받았기 때문에 안아주는 맘으로 끌어안게 되고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아이와 관계 형성에 있어 하나의 방향타가 될 수 있는 큰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소중한 깨달음 주신 교장선생님과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_ 9학년 ***의 아버지 (4기 아버지세움 수료)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라고 자부하며 지냈는데 아버지세움에 와서 보니 정말 목적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나 물질을 충족시켜주고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은 아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세움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잊고 자녀들을 양육했었습니다.

이곳 샘물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제가 아버지세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든 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딸이 입학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걸 아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가족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아이들이나 저나 어색했지만,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같이하시는 것 같아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구나!' 이를 또 한 번 느끼며 한 가정의 제사장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글 _ 7학년 ***의 아버지 (4기 아버지세움 수료)



아버지세움 수료기념 중창(4월 연합예배 중)

샘물 구성원이 함께 책을 읽으며 배움을 누리고,
서로 나누고 독려함으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제 4 회 샘물 독서마라톤 2016.04.11~12.03 (238일간)



248
PAGES

신성영 학생
예비 2016년 1학기
월계관 코스

기적의 사과 이 책은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9년의 노고 끝에 무농약 사과 재배에 성공한 스토리를 담은 책이다. 처음에는, 적어도 그 시대에는 불가능하다 여긴 도전이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에 필적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를 때, 나무만 보지 말고 흙을 보자는 깨달음을 얻고 결국 성공하였다. 내가 느낀 점은, 정말 한 가지에 미치면 언젠간 결국 성공하는구나. 어느 한쪽만 해충이라 박멸하지 말고, 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하는구나였다. 이 세상의 자연이 이토록 위대하구나. 작은 벌레 하나하나가 모여 티끌 모아 태산이구나. 이 생태계도 이토록 위대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327
PAGES

한예원 학생
10학기 1학기
장미꽃 코스

바보 빅터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멘사 사장과 트레이시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훗날 멘사 사장이 되는 빅터는 아이큐 173의 소유자였지만 검사 결과가 잘못되는 바람에 17년 동안 아이큐 73인 저능아로 살아 가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성인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우여곡절 끝에 멘사 사장이 된다. 또한 '로라'로 나오는 트레이시 역시 주위 가족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못난이 콤플렉스에 시달려 17년을 낭비하지만 결국에는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단순히 '결과'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료일 뿐 절대로 그 사람의 자존감, 가치, 또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298
PAGES

손가영 학생
10학기 1학기
바람 코스

상대성 이론의 아름다움
상대성 이론은 특수와 일반으로 나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광속)와 가까운 빠르기로 움직였을 때 시간이 지연되고, 길이가 축소되

고, 사물의 질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사물이 있으면 주위가 일그러지며 시간의 지연 효과 등이 일어난다고 한다. 운동은 상대적이지만 빛은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상대성 운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밖에 빅뱅, 인플레이션 등등 난해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성경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아 어려웠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다.

집 나간 책 서평집은 처음 시도한 것인데, 이 저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자인 '서민'이 어떤 사람인지 TV show program에서 본적이 있기 때문에 믿고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민은 자신의 얼굴이 못 생겨서 공부로 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자신을 낮추면서 높이는-모순적이어서 재미있다- 개그맨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평들이 하나하나 지루하지 않고-자기 자신의 자랑과 비하가 항상 함유되어-책을 읽고 싶게 책의 매력을 잘 구사한다.

물론 아쉬운 면이 있는데, 장하석의 "온도계의 철학"을 평할 때는 다 읽지도 않아 놓고 그 사람이 자기의 동창이며 그 사람이 자신의 라이벌이었다는- 알고 보니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시시껄렁한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웃겼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독서마라톤을 시작할 때, 특별히 책을 찾아 읽고 하는 편이 아니라, '무슨 책을 읽어야지?'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 이 책을 통해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생겼다. 열심히 읽어서 독서마라톤도 달리고, 서민의 말대로 '나는 바쁜데도 책을 이만큼이나 읽었습니다-실제로 서문에 처음부터 딱하니 '이 책을 낸 이유'하고 나온다-하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샘물의 후원자님 (2016년 1월 ~ 6월)

- | | | | | | | | | | | |
|-----|-----|-----|-----|-----|-----|-----|-----------|---------|-----|-----|
| 강매순 | 김석진 | 김지용 | 박명수 | 손기원 | 윤정희 | 이승희 | 이혁중 | 정미정 | 진영탁 | 이상욱 |
| 강문식 | 김선경 | 김지용 | 박상은 | 송난난 | 이가연 | 이애라 | 이현성 | 정성욱 | 진은주 | 하헌재 |
| 강연희 | 김선화 | 김지희 | 박선희 | 신원선 | 이건 | 이연희 | 이현준 | 정성일 | 차명지 | 한동수 |
| 계영희 | 김성수 | 김진영 | 박세현 | 신준현 | 이건수 | 이영주 | 이형섭 | 정수연 | 차우창 | 한미아 |
| 고영수 | 김성숙 | 김충곤 | 박수연 | 신철균 | 이경림 | 이예경 | 이훈재 | 정승우 | 차중호 | 한선이 |
| 고영은 | 김성욱 | 김태영 | 박신영 | 신현화 | 이경미 | 이옥진 | 임기영 | 정연선 | 최나리 | 함은희 |
| 곽민환 | 김성은 | 김태희 | 박연주 | 신혜경 | 이경민 | 이용준 | 임선희 | 정우철 | 최미선 | 함희영 |
| 곽준우 | 김성일 | 김하영 | 박운순 | 심현아 | 이계환 | 이원우 | 임성도 | 정윤석 | 최상규 | 허윤지 |
| 곽현영 | 김성진 | 김학미 | 박원희 | 안군식 | 이광선 | 이유태 | 임성윤 | 정은수 | 최소명 | 홍성아 |
| 곽영희 | 김수철 | 김해정 | 박은조 | 안미여 | 이기진 | 이윤정 | 임영호 | 정은아 | 최수미 | 홍성우 |
| 국영은 | 김수현 | 김현규 | 박일두 | 안은경 | 이대성 | 이은선 | 임지순 | 정은영 | 최옥남 | 홍순철 |
| 권다해 | 김연 | 김호삼 | 박재연 | 안은선 | 이동선 | 이은숙 | 장금성 | 정은자 | 최윤준 | 홍의숙 |
| 권문영 | 김연석 | 김호일 | 박정석 | 양희곤 | 이만호 | 이은실 | 장금아 | 정조운 | 최의규 | 홍지희 |
| 권민창 | 김연우 | 김효정 | 박정현 | 엄종석 | 이미선 | 이은아 | 장원희 | 정태열 | 최종국 | 황수미 |
| 권영숙 | 김영미 | 김후승 | 박종준 | 오미영 | 이미영 | 이임숙 | 장종수 | 제창희 | 최중대 | 황의경 |
| 김경란 | 김영수 | 김희연 | 박진수 | 오중호 | 이미화 | 이재웅 | 장철희 | 조성완 | 최지형 | 황지영 |
| 김경선 | 김영환 | 김희영 | 박철오 | 오진숙 | 이미희 | 이재혁 | 장현정 | 조성혜 | 최진영 | 황지혜 |
| 김광애 | 김원기 | 김희준 | 박현민 | 오판권 | 이민영 | 이정미 | 장혜순 | 조영란 | 최한준 | |
| 김낙교 | 김은영 | 나미일 | 박현주 | 왕동식 | 이봉구 | 이주하 | 전동찬 | 조유숙 | 최현경 | |
| 김남화 | 김은혜 | 나종주 | 박홍락 | 왕현정 | 이상구 | 이준석 | 전혜숙 | 조윤희 | 최효순 | |
| 김남경 | 김은희 | 남궁선 | 박희숙 | 왕훈식 | 이상호 | 이지수 | 정길현 | 조현국 | 추영혜 | |
| 김동례 | 김인경 | 남동훈 | 배선양 | 우광제 | 이선경 | 이창길 | 정미선 | 주유진 | 추충호 | |
| 김동선 | 김인하 | 남상금 | 배신규 | 유기남 | 이선주 | 이채우 | | 주현 | 편혜원 | |
| 김동연 | 김재문 | 남형무 | 백창현 | 유민환 | 이소현 | 이춘남 | | | | |
| 김동혁 | 김정숙 | 노은진 | 백향숙 | 유설자 | 이순희 | 이해돈 | 세종씨앤피주식회사 | | | |
| 김명제 | 김정현 | 노현훈 | 서시대 | 유수경 | | | 이노브주식회사 | | | |
| 김모라 | 김종대 | 류혜연 | 서영주 | 유숙인 | | | 인베스트지앤앤스 | 기쁨누리교회 | | |
| 김미라 | 김종두 | 문희진 | 서재완 | 유시 | | | (주)서우타이밍 | 꿈꾸는교회 | | |
| 김미란 | 김종혁 | 박기영 | 선애영 | 유예동 | | | 샘사랑학부모회 | 더사랑의교회 | | |
| 김미숙 | 김준수 | 박갑윤 | 선지웅 | 유일광 | | | | 선한목자교회 | | |
| 김민규 | 김준희 | 박경수 | 성홍모 | 윤영선 | | | | 열린하늘문교회 | | |
| 김병근 | 김지영 | 박권주 | 소재목 | 윤정선 | | | | 우리들교회 | | |
| | | | | | | | | 은혜샘물교회 | | |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031.714.7091,0번)"

샘물중고등학교는 섬기는 예수 제자를 기르는 기독교(원안)학교입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사라지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샘물은 기독교교육을 통해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무척 큼니다.

샘물중고등학교가 교회, 가정과 함께
'백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를 힘있게 세워 가도록
샘물 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학교는 '다음세대 생명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후원계좌 : 수협중앙회 1130-0049-1086 (예금주:샘물교육선교회)



걸음의 조각들 (7학년 미술수업)